

#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슈퍼워크… 野, ‘갑질 의혹’ 강선우 공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후보자, 의혹 폭로에 ‘논란’  
인사청문회에서 의혹 소명 입장

진성준 “어떻게 소명하는지 듣고  
납득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려”

여야가 14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슈퍼워크를 앞둔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끌 구윤철 기재부·김정관 산업부·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중심으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의정활동 와중에 보좌진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연일 터져나오며 정권에 부담이 되는 모양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자신의 집변기 수리를 맡기고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시하는 등의 의혹이 폭로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강 후보자는 언론사에 갑질 의혹을 제보한 전직 보좌진의 문제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슈퍼워크’를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장에서 관계자가 후보자 명패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를 지적하며 법적 조치까지 언급한 것을 두고 ‘2차 가해’라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갑질 의혹 보도한 기자는 고소 못하고, 갑질 제보한 보좌진을 고소한다는 것. 보좌진에 자기 집 변기 수리 시키는 것보다도 최악의 갑질이자 강악약강(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행동)”이라며 “민주당은 ‘을(乙)’ 위한다며 만든 ‘을지로 위원회’를 ‘갑지로 위원회’로 바꾸라”고

지적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복수의 전직 보좌진들이 구체적인 괴롭힘 피해를 진술했고, 보좌진이 46차례 교체된 상황까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을 전제로 한 신고자 보호 조치 및 진상 조사는 지극히 당연한 절차”이라며 “그런데도 장관 후보자 본인이 해당 보좌진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언급한 것은 최악의 보복성 대응이며, 이를 방관하

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악자 보호’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의혹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도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다.

다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3일 KBS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논란이 되는 장관 후보자의 나마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 받았다. 진 정책위의장은 “후보자가 어떻게 소명하는지 들어보고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려할 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후 여론 변화를 지켜본 후 낙마까지 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진 정책위의장은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뒷받침해야 옳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소명이 안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재선의 권영진 의원을 위

원장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 인사 국민 검증센터를 출범시키고 국민들의 비리 의혹 제보를 받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KBS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이 대통령에게 범죄 경력이 있다 보니 도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너무나 흐릿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민석 국무총리도 범죄자니까 장관 인선을 어지간한 위법 행위나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개연성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근로자 인권과 노동 문제에 대해 얼마나 많이 얘기했느냐”며 “자신들의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거꾸로 대하고 있다. 권력의 오만과 독선은 국민이 용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끌 구윤철 기획재정부·김정관 산업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한성숙 중소기업벤처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에 열린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당정, 실무회의서 ‘히트플레이션’ 대응안 마련한다

〈폭염+인플레이션〉

내일 진성준 정책위의장 주재  
폭염 대책 당정 실무회의 예정  
폭염에 농작물·닭고기 가격 올라

극한 폭염이 농작물 작황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먹거리 물가가 오르는 ‘히트플레이션(폭염+인플레이션)’ 현상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당정이 만나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진성준 정책위의장 주재로 폭염 대책 당정 실무회의를 열 예정이다. 국회에선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가, 정부에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대표로 참석해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작황 악화 등 현안을 논의할 예

정이다.

또한 민주당 물가대책 태스크포스(TF)는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동행해 오는 1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를 현장 방문해 물가동향을 점검한다.

당정은 지난 6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당은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을 최소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 바 있다.

7월을 전후해 찾아온 폭염은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냉방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맘

때쯤 찾아오던 장마가 비교적 빠르게 잦아들면서 이른 폭염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7월 1일~10일 전국 평균 폭염(하루 최고 기온 33도 이상) 일수는 5.5일로 지난해 7월 기록을 넘겼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여름 제철 과일인 수박 1통(소매 기준) 가격은 지난 11일 기준 평균 2만9115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보다 36.5%, 평년보다 38.5% 상승했다.

업계에선 수박 가격 급등이 지난달 일조량이 감소해 생육이 지연됐고, 7월 들어 폭염이 찾아오면서 수요가 급증한 탓으로 예측한다.

여름 제철 채소인 오이(가시 계통) 소

매 가격은 10개에 1만1780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약 26%, 29% 올랐다. 깻잎도 상(上)품 기준 100g에 2648원으로 전, 평년과 비교해 14.38%, 24.55% 올랐다.

닭고기와 계란값도 심상치 않다. 최근 이어진 폭염으로 폐사율 급증 우려와 복날 수요까지 겹쳐 가격 인상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돼지 2만 마리, 가금류(닭·오리 등) 50만 마리다. 7월 1~9일 기준 계란(특란) 30개 소매 가격은 평균 7089원으로, 작년 같은 달 상순과 비교하면 9.4% 올랐다.

때아닌 폭염에 서민의 냉방비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취약계층 등의 냉방비 절감대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전력 수요는 역대 7월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최대 전력 수요는 하루 중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대의 전력 수요를 뜻하는데, 지난 7~8일 역대 이틀 연속 역대 7월 기록을 경신했다.

또한, 오는 21일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 핵심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국민에게 현금성으로 지급돼, 전반적인 물가 인상을 견인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김병기 당 직무대행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적 폭염이다. 국민의 건강과 재산이 가장 중요하다. 온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축산 농가, 어가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정부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 李 대통령, 오늘부터 EU·佛·英·印 파견될 특사단 확정

윤여준·강금실·추미애·김부겸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14일부터 주요국에 순차적으로 파견될 특사단 명단을 확정해 13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출국하는 유럽연합(EU) 특사단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에게 단장을 맡기고, 단원으로 전현희·손명수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EU 특사단은 14일 벨기에로 출국해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EU 간 협력 확대 의지를 전달한 뒤 17일 귀국할 예정이다.

프랑스 특사단장으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단원은 한병도·천준호 민주당 의원과 함께 오는 15일 출국한다. 프랑스 특사단은 15~18일 동안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앞둔 프랑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민주당 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와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를 기대한다는 이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16일 출국하는 영국 특사단은 단장 추미애 의원, 단원으로 단원으로 최민희·박선원 의원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영국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영 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인도 특사단을 맡아 16일 출국한다. 송순호 최고위원과 이개호 의원이 단원으로 함께한다. 이들은 한국과 인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방산·국방 등을 포괄하는 전방위적 협력 관계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홍 기자

## 국정위 “정부조직 개편, 대통령실과 검토”

이한주 국정위원장 기자간담회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활동 반환점인 4주차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준비한 내용을 대통령실에서 같이 검토했고, 큰 틀에서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조직개편의 실무 작업을 맡은 박흥근 기획분과장 겸 정부조직개편 TF 팀장은 “기본 원칙과 방향은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 분산이라고 하는 측면과 대한민국 미래 위기 대응이란 측면이다”라고 했다.

박 팀장은 “기재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문제 같은 검찰개혁 관련 내용, 기재부 예산 분리,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금융위 이분화돼 있는 것 등 대통령

께서 선거 당시 여러 번 언급한 내용을 반영한 안이 실무적으로 마련돼 있고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후에너지부와 관련해선 “대통령께서 관련 부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며 “쟁점은 결국 환경부와 함께 할 것인가 아닌가다. 산업부에서 에너지부만 떼어오는 방식이 될 텐데 여기서 저희가 몇 가지 안을 갖고 그동안 대통령실과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부총리 신설도 논의되고 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부총리제 개편 관련된 논의도 좀 있었다”고 했고, 박흥근 기획분과장은 “부총리가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검토하는 거고 (과기부총리를 두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